

야웨의 창조적 행위 안에 나타난 구약의 이상적인 가정

- 첼렘 엘로힘(צְלֵם אֱלֹהִים)과 암 야웨(אֵם יְהוָה)의

창조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조 명 기 교수

(Ph.D., 백석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고가 가지고 탐구하려는 목표이자 방향은 구약 전편에 흐르는 두개의 중요한 주제인 첼렘 엘로힘(צְלֵם אֱלֹהִים, 야웨의 형상)과 암 야웨(אֵם יְהוָה, 야웨의 가정)의 창조적 역동성 속에 나타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분석하여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독립적이며 통합적인 이러한 존재가 가정이라는 신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첼렘 엘로힘으로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암 야웨 속에서의 통합적인 존재로 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나 기능, 혹은 수평적인 자료 나열을 통한 보편성을 들추어내기 보다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야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보편성 속에서 가정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밝혀내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의미를 신앙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깊이 다룸으로써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야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본 논고가 풀어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지를 구체적으로 역대상 4:9-10에서 그러지는 아베스리는 구약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산 인물의 삶의 자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아베스는 켈렘 엘로힘으로서 충분한 인격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출생하였으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암 아웨의 모습을 이루었고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온전한 아웨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아베스를 통해 아직 과정론적으로 진행 중이며, 결과 역시 아직 유동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완하고 회복시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암 아웨로서의 모습을 찾아내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켈렘 엘로힘의 창조성 위에 세워진 인격적인 자이는 암 아웨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가정의 자리이며 의미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전하고 인격적인 켈렘 엘로힘이라 할지라도 암 아웨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인간의 참된 존재의 의미는 아웨 앞에서 만들어진 온전한 자이를 기초로 가정이라는 신적인 기구를 통해서 연합된 인격을 만들어가며, 자연, 생명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조화와 발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밝히 드러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약이 말하는 참된 켈렘 엘로힘의 존재로서의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존재한다.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자리를 켈렘 엘로힘과 암 아웨의 창조적인 연합의 자리에서 분석하여 우리가 가진 현존이 필요로 하는 과정적 필요성을 도출시켜 우리의 실존을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시키고, 21세기 가정 해체의 현장에 필요로 하는 가정의 모습인 암 아웨로서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여 가정의 회복, 치유, 완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중심단어 : 구약, 가정, 켈렘 엘로힘, 암 아웨, 아베스

I. 여는 글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혈연관계로 맺어진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상태(Home)와 장소(House)를 모두 일컫는 말이라 볼 수 있다.¹⁾ 이곳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공동체라 볼 수 있으며, 다른 공동체들과 일정한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 성숙해져 가는 집단인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의 연합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²⁾ 구약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그 존재론적 관계성과 존재성을 이어 받고 있다. 다음의 성서 구절을 읽어보자.

“나눔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³⁾

위의 구절에서 “켈렘 엘로힘(כֶּלֶם אֱלֹהִים, 아웨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

상대로”라는 말씀에서 “형상(μοῦσι)”은 아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며 영적이고 인격적이며 충분히 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가 남자와 여자이며 이들의 인격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인류가 추구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 존재의 모습이며, 이러한 연합으로부터 성서가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인격체는 자신과 또 다른 존재, 또는 인격체들을 인식하며 자기화시켜 나간다. 우리가 가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인격의 연합을 이루어 낼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발할 수 있으며,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모두 동등하고 균형 잡힌 통합적인 존재가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은 가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우 주요한 개념으로 가정의 구성원들, 즉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독립적이며 관계적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⁵⁾

본 논고가 가지고 탐구하려는 목표이자 방향은 바로 이러한 독립적이며 통합적인 존재가 가정이라는 신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쉘렘 엘로힘으로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암 아웨 속에서의 통합적인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나 기능, 혹은 수평적인 자료 나열을 통한 보편성을 들추어내기 보다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아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보편성 속에서 가정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밝혀내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의미를 신앙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깊이 다룸으로써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아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본 논고가 풀어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지를 구체적으로 역대상 4:9-10에서 그려지는 아베스리는 구약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산 인물의 삶의 자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아베스는 켈렘 엘로힘(כְּלֵם אֱלֹהִים, 아웨의 형상)으로서 충분한 인격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출생하였으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암 아웨(אִם אָוֶה, 아웨의 가정)의 모습을 이루었고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온전한 아웨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아베스를 통해 아직 과정론적으로 진행 중이며, 결과 역시 아직 유동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완하고 회복시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암 아웨로서의 모습을 찾아내어 보려고 한다.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자리를 켈렘 엘로힘과 암 아웨의 창조적인 연합의 자리에서 분석하여 우리가 가진 현존이 필요로 하는 과정적 필요성을 도출시켜 우리의 실존을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시키고, 21세기 가정 해체의 현장에 필요로 하는 가정의 모습인 암 아웨로서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여 가정의 회복, 치유, 완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⁶⁾

II. 펴는 글

1. 켈렘 엘로힘(כְּלֵם אֱלֹהִים, 아웨의 형상)의 창조적 인격 속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⁷⁾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명령은 남녀의 결합과 또 그 결합에서 비롯되는 재창조의 능력의 활용에 관한 말씀이었다. 성서가 말하는 가정의 개념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 가정이 출발하며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관계론적 인간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온전한 인격체의 결합으로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 안에서 살며, 자녀이자 부모로서 지속적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가정의 개념에서 독특한 점은 가정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개별적인 인격을 회복시키고 각각의 인격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간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며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독립적 자아와 확장된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⁹⁾ 이것이 가정이 가진 참된 의미이며 자리라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의 출발점은 바로 켈렘 엘로힘이다. 켈렘 엘로힘을 따라 아웨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¹⁰⁾ 그러나 이 켈렘 엘로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탐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명확한 결론이나

동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¹¹⁾ 그러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첼렘 엘로힘은 하나님의 본질적 실체와 실체의 존재적 자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갖은 인간은 첼렘 엘로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감성과 의지와 열정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여 그것을 완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창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립적이며 공동체적인 인격적 자아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¹²⁾

한마디로 과정적 인간으로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참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정이라는 신적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첼렘 엘로힘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개의 중요한 동시를 허락하셨는데, 즉 “생육하라(פָּרָו, 파라)”와 “번성하라(רַבֵּוּ, 라비)”라는 동사이다. 이 두 동사는 첼렘 엘로힘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독립적인 자아를 인격적으로 완성하되 공동체적인 자아를 통해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나아가라고 하는 거룩한 아웨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고독한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관계론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으로 자아 완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연합의 자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명령이며 철학인 것이다. 역사(History)와 역사들(Histories)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분명한 자아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역사(History)를 공동체적인 역사(Histories)를 통해서 조명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성찰해 나갔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포로 후기의 상황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 되돌아오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켈렘 엘로힘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¹³⁾ 특히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여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철저하게 아웨 중심의 켈렘 엘로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개인의 절망과 좌절은 공동체의 좌절이며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라는 철저한 연속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유대인들은 아웨만 섬기는 건강한 자이는 축복된 자녀들을 이루고 축복된 자녀들은 영원한 왕국을 만든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구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이다. 개인의 자아의 완성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인 것이다. 이것은 곧 아웨에 대한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개인의 존재의 의미는 자신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공동체의 번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아웨에 대한 깊은 신앙의 회복과 풍요로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땅에 충만하다(מלאו את הארץ, 밀루 에트 하이레츠)”라는 표현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데라 이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사에서도 이러한 자아의 완성이며 아웨 하나님의 의지로서 자손의 증대에 관한 약속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표현 양식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¹⁵⁾ 바다의 모래와 같이,¹⁶⁾ 땅의 먼지와 같이¹⁷⁾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¹⁸⁾ 이러한 자손 증대의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일뿐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신앙적으로 이해될 때 참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여기가 구약성서가 말하는 참된 인격의 자리이다. 구약성서는 한 개인의 참된 인격은 개인의 자아의 회복과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론적 자리와 아웨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자리라는 삼각 구도에 놓고 한 개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은 인격의 연합이라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삼각 구도의 참된 존재를 완성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슈미트(W. H. Schmidt)는 “땅을 정복하다(כבש, 카바쉬)”는 표현을 동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이해하고 있는데,¹⁹⁾ 즉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표현하는 라다(רדד)동사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땅의 정복을 통해 인간은 땅 위에 있는 동물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성서를 반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것으로서 오히려 “땅을 정복하다(כבש, 카바쉬)”는 것은 자연, 생명세계와 어울려 조화롭게 자신의 자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완성시켜 나아가라는 아웨 하나님의 인격적인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인간의 참된 존재의 의미는 아웨 앞에서 만들어진 온전한 자아를 기초로 가정이라는 신적인 기구를 통해서 연합된 인격을 만들어가며, 자연 생명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조화와 발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밝히 드러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약이 말하는 참된 켈렘 엘로힘의 존재로서의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암 아웨(אם אַווע, 아웨의 가정)의 통합적 개념 속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

한 개인의 존재, 자존감, 가치, 목적도 물론 중요하나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 있는 개인이 아웨 아래 모여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론적 존재로 발전될 때 더욱 완전한 존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가정이라는

자리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확장된 자아이자 공동체적인 자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대인은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 강한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유독 혈연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심하고 전통과 율법에 대한 규율이 엄하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개별적인 가정이 집단적인 거대 공동체적인 가정으로 확대된 형태를 가진 민족이라 볼 수 있다. 즉 가정(Family)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대화와 교육을 통해 결정되고 전승되어 가듯이, 이스라엘은 전 민족(Families)이 아웨게 같이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와 축제를 통해서 아웨리는 아버지 아래서 모든 민족들(Families)이 결속되고 정체성을 찾으며 각 가정들이 서로 하나임을 인식해 간다.²⁰⁾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이후 왕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구조가 완화되어 가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용어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일컫는 용어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יִשְׂרָאֵל)이다. 이스라엘이란 표현은 창 32:28절에 야곱과 천사가 압박강에서 씨름할 때 처음 등장하는데, 의미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라는 것으로 켈렘 엘로힘으로서의 인간이 아웨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집단적인 공동체인 암 아웨가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어 가는데, 호세아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즈레엘(יִזְרְאֵל)²¹⁾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흩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이주신 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역사 후반으로

갈수록 개별적으로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확대된 가정의 개념으로서의 민족 (Families)이 계약이라는 법적인 개념으로 보다 체계화 조직화된 민족(Peoples)으로 발전해 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유다(יִשְׂרָאֵל)이다. 원래 구약에서 유다는 아곱의 넷째 아들을 가리키는 인명으로서 등장하는데²²⁾ 의미는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이다. 그 이후 구약 본문에서 유다가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아웨와의 계약에 의한 신민의 정치적, 제도적인 면을 강조할 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다라는 이름이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뿐 아니라 하나의 지파로 발전하면서 후에는 베나민 지파와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이 아웨 중심의 공동체적인 이름(the Name of Families)이라면 유다는 아웨를 중심으로 하지만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이름(The Name of Peoples)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혈통적 측면을 강조할 때에는 히브리(עִבְרִית)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아직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름이다.²³⁾ 어원적으로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다하여 아브라함의 가계를 향하여 부르던 명칭으로 볼 수 있는데,²⁴⁾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히브리인이라 불려졌다.²⁵⁾

그러나 구약에서 이러한 이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불리는 명칭이 바로 “아웨의 백성”이라는 명칭이다.²⁶⁾ 우리가 흔히 “백성(Peoples)”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암”(עַם)은 어원적으로 “백성”이라기보다는 “가족”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이다.²⁷⁾ 오늘날 민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원래에는 히브리어로 “아웨의 가족(the Family of YHWH)”으로 불렸던 집단이며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정확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친척은 가까운 친척을 언급할 때에는 고엘(גּוֹאֵל)

을 사용하는데, 특히 “암”(אם)은 아버지 쪽의 형제를 일컫는 명칭이었다.²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웨의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아버지로써의 하나님을 기초에 두고 발전한 가정 공동체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아웨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만들어진 생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가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족들간의 관계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아웨에 대한 신앙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신앙적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웨는 이스라엘 가족의 중심이고 민족(Families)의 중심이다. 이스라엘의 가정(Family) 안에서 아웨는 아버지가 되시며 민족(Families) 안에서 아웨는 왕이 되시는 것이다. 아웨에 대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아웨에 대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 가듯이 민족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웨 하나님과 맺고 있는 계약 사상이다. 아웨와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간에 맺은 친밀하고 선택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공유적인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발전한 공동체에서 시내산에서 아웨와 맺은 계약 공동체로 발전해 가듯이, 히브리 민족(עַם יִשְׂרָאֵל)이 아웨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거대한 두 기둥은 바로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아웨 신앙 중심주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아웨 아래 선택되어 불러 모여진 국민(Nation)이 아니라 민족(Families)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²⁹⁾ 한 마디로 켈렘 엘로힘의 창조성 위에 세워진 인격적인 자아는 암 아웨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가정의 자리이며 의미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온전하고 인격적인 켈렘 엘로힘이라 할지라도 암 아웨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3. 구약의 여러 문헌 속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

이러한 켈렘 엘로힘(אלוהים, 아웨의 형상)과 암 아웨(אם אִוֶּה, 아웨의 가정)의 창조적 역동성 속에 자리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철저하게 아웨 중심으로 아웨의 말씀을 가르쳐 삶과 생명의 중심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의미는 구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구약 여러 문헌들 가운데서 가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히브리어 바이트(בית)이다. 원래 이 용어는 가족의 거주지인 “집”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문맥상으로 가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³⁰⁾ 그리고 바이트(בית) 외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미스파하(משפחה)가 있는데, 이 용어는 “씨족(Clan)”이나 “가족(Family)”을 의미하는데, 특히 부족이나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집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³¹⁾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가정은 공간적인 개념인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בית)로부터 출발하며 민족 공동체 같은 집단 역시 가족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³²⁾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바이트(בית)와 헬라이어 유사어인 오이코스(οἶκος), 미스파하(משפחה) 모두 이러한 가정의 출발점을 아웨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³³⁾ 즉 가정은 일정한 공간에 아웨 하나님을 섬기며 연합된 켈렘 엘로힘으로서 아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단수, 혹은 복수 집단인 암 아웨를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제도로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곳이며, 구성원 간의 신의와 징결로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이다.³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웨 하나님께 대한 순결이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성결이고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정결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 구성원은 모두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첼렘 엘로힘으로서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 암 아웨로서의 성결과 정결을 뛰어 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부부간의 일부일처나 부모와 자녀간의 패륜적인 일체의 행위 역시 금하고 있는 것이다.³⁶⁾

아웨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철저한 신앙위에서 이스라엘의 가정은 세워져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부모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정은 아웨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이끌어 가는 원초적인 역할을 감당해 간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유년기의 예절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를 사회인이자 아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 간다.³⁷⁾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신앙심과 민족의식을 동시에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가정의 독특한 점이다.³⁸⁾ 가정의 인격적인 본질을 아웨 하나님께 귀속시킴으로서 분명한 질서로 다듬어진 평등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자녀는 십계명에 명시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예를 다해야 하고,³⁹⁾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약의 지혜문학을 비롯한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을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개인으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족보를 통한 가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⁴¹⁾ 이러한 경향은 민족적인 순수한 혈통과 아웨 신앙의 순결함 사이의 통합적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민족과 신앙을 동일화시킴으로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뿐 아니라 신앙적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인격적으

로 수평적이며 신앙적으로 수직적인 가정을 만들어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관계성은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웨 하나님 앞에서 수평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⁴²⁾ 부부의 관계는 이타적인 헌신적 관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결합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⁴³⁾ 따라서 구약에서는 일부일처를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조건으로 그려주고 있다.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일반적인 결혼형태는 항상 일부일처제였다. 성서 일부에서 일부다처와 아울러 축첩제가 그려지기도 하였으나, 축첩제는 주로 비교적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첩에게서 난 자식들은 부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갖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첩을 거느렸던 소수의 지도자들은 “너희는(왕)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다.⁴⁴⁾ 일부다처제는 비교적 드물었던 풍습이었지만 지도자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호이히트(Feuch)는 일부다처제, 축첩제 등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로부터 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한 것을 굳이 증거본문으로 들지 않더라도, 성서 본문 상에서 일부다처주의가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었다는 충분한 증거는 많다.⁴⁵⁾ 분명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일부일처제를 보여주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기록이다.⁴⁶⁾ 그리고 많은 율법들이 일부일처제의 혼인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⁴⁷⁾ 지혜서인 잠언은 적법하고 독점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즐거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결혼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남, 녀가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⁸⁾ 특히 잠언서에서는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부다처제 생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⁴⁹⁾ 그리고 아기의 연기는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적이고 있으며. 말라기서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저버리는 행위를 저주하고 있다.⁵⁰⁾ 특히 십계명중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은 결혼의 거룩한 성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¹⁾ 간음은 부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⁵²⁾ 성경은 전반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취하기를 주장한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아웨 이외의 어떤 다른 신(gods)도 허락지 아니하는 아웨 신앙 절대주의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⁵³⁾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질서가 주어졌다. 이 질서는 남녀가 각각 아웨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격적 연합을 통해 사랑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켈렘 엘로힘과 암 아웨를 통해서 구체화 되었으며, 이러한 구체화된 인격적 연합의 과정은 창조 안에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만 지각할 수 있고, 신앙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개인의 자아의 완성의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완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야베스는 충분히 켈렘 엘로힘의 사람이며 암 아웨의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켈렘 엘로힘의 가치와 암 아웨의 가치를 모두 완성한 구약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와 배타적인 배금주의와 극단의 향락주의로 몰들어 켈렘 엘로힘의 가치와 암 아웨의 가치를 모두 상실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현존의 극복을 통한 켈렘 엘로힘의 모습과 그가 완성한 암 아웨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추출해 보도록 할 것이다.

4. 역대상 4:9-10

1) 본문 탐구

① 인물탐구 : 야베스(יָבֵז, Jabez)

야베스란 뜻은 어원이 불분명한 인명으로 “그는 괴롭혔다”, 혹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으로,⁵⁴⁾ 이러한 단어를 인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의 출생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라 볼 수 있다.⁵⁵⁾ 즉 야베스의 출생의 상황과 과정이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달랐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나를 괴롭힌 아들”이라고 지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는 유대인 중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그 인격과 삶과 가정이 가장 가치있는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⁶⁾

② 본문의 배경

역대상 1-9장의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는 시조를 이담부터 족보를 기록하되 이스라엘(야곱)의 아들별로, 즉 지파별로 정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족보이다. 그런데 그 족보 사이에 특이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바로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다. 그냥 이름 야베스만 기록되면 될 자리에 “야베스는 형제들 보다 존귀한 자라”(9절)로 시작하여 그 존귀함의 이유로 야베스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낸 사건(778, 카라)과 이 사건의 내용으로서 그의 요청(787, 쇠알)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할 구약의 이상적인 첼렘 일로힘의 모습과

그가 이루어낸 암 야웨의 가치를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 것이다.

1. 우선 이스라엘의 족보를 등장시키는 본문에 왜 유독 이 족보의 틀을 깨면시까지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2. 두 번째는 그의 출생시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출생에 대한 어머니의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
3. 세 번째는 야베스의 존귀함의 근거인 그의 카리(קרי, 드러내다)와 쇠알(שׂאל, 요청)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역대상 4장 1-23절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 중에서도 유다지파의 명단을 적어놓은 글이다. 특히 수많은 유다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이름없이 경건히 산 한 유다지파 사람인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는 글이다. 족보에 이름뿐 아니라 그의 기도문이 실린 특이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족보에 유독 일단의 특이한 한 사람의 일생을 신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창 5장 1-32절의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 나오는 에녹(21-24)이라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노아(29절)이다.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삼백 육십 오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⁵⁷⁾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⁵⁸⁾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아베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본문에서도 10절의 내용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10절의 내용은 아베스가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인데, 그가 이 간구의 요청을 아웨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허락받았다는 말씀만 나온다. 그렇다면 아베스가 “존귀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10절의 그의 요청 내용 때문이고, 그 요청이 응답받았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가 어떻게 켈렘 엘로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의 요청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2) 본문의 분석

9a 아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구절은 아베스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은 바로 9절에 이어지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와 대구를 이루는 말이다.

아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 맺구를 이루는 본문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언뜻 보면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귀하다’는 말과 ‘수고로이 낳다’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존귀하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귀하다’란 뜻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כבד), 즉 “짐이 되는, 둔한, 매우 슬프게 하다”란 뜻이 바로 존귀하단 뜻인데, 의미를 풀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짐이 되어 삶의 과정 속에서 참으로 슬프게 했던 인물이란 뜻이다.⁵⁹⁾ 즉 “Piteous Man”이지 “Honorable Man”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본문의 비밀이 있다. 구약성서와 이 구약성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약성서는 존귀하다는 의미를 오직 한 곳에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아웨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것이다.

공황히 여기는 자(ενημονε)는 복이 있니 재화가 공황히 여기(ενηθησοονται)을 받을 것임이요⁶⁰⁾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황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 아베스 같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공황을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전통상 존귀란 뜻은 외적인 삶이나 특성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나 중심에 있다.⁶¹⁾ 바로 아베스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형제들 보다 외적으로는 못났으나 내적으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다. 아베스는 출생부터 온전치 못한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마치 야곱의 막내아들처럼 말이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가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⁶²⁾

위 본문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막내아들인 베나민을 낳고 죽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라헬이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야곱이 베나민으로 바꾸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다. 위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헬이 이름 지은 베노니라는 말은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출산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게 해 주는 본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자 아곱이 막내의 이름을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야베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어미가 야베스라 이름하고 그 이름의 뜻을 “고통”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 같은 상황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⁶³⁾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아들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비록 그의 출생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의 중심은 존귀하였던 것이다. 마치 다윗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부모인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외모나 태어남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신지자 사무엘이 왔어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물이다. 더욱이 사무엘도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만하다고 감탄을 할 정도였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⁶⁴⁾

그러나 아웨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인을 받는 자리에 모두들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차려입은 자리에 다윗은 자신의 7명의 형들의 자리에 같이 서지 못하고 혼자 형들이 빠져나간 자리의 양떼들을 혼자 전부 돌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인물이었다. 불평 한마디 안하고 그저 시킨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아웨 하나님을 보며 그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⁶⁵⁾ 들짐승인 이리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때론 곰 같은 큰 짐승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에도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하며 고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웨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공유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며 생각했던 인물이다.⁶⁶⁾ 즉 첼렘 엘로힘의 가치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내적 중심에 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자신의 중심의 차이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어 그의 중심을 아웨 하나님께서 암 아웨으로 승화시켜 그를 완성해 가셨다고 볼 수 있다.⁶⁷⁾ 부모인 이새의 눈으로 보아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보일 인물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 외모와 모습이 얼마나 그러했겠는가? 그러나 구약의 전통은 아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전통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존귀한 자란 이런 뜻이라 하겠다. 고통이 어떻게 생각하면 짐이 되어 고통을 당한 사람을 아프거나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고통은 자신의 경건함을, 자신의 인격을 밖으로 더 나아가 아웨 하나님께 증명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는(קרא, 카라) 좋은 과정인 것이다. 아웨 하나님은 각각의 첼렘 엘로힘을 암 아웨으로 완성시켜 나간다.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징은 온전한 자(צדק וצדקה, 첼렘 엘로힘)가 아웨 하나님의 가징(אם אלהים, 암 아웨)으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아베스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문의 아베스의 존귀함은 그의 부족함, 혹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커다란 도구가 되었다는데 있다. 즉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도구로 자신의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부모의 자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관계성이 그대로 자녀의 존재와 사회의 관계성으로 전승되어 가기 때문이다. 아베스의 부모는 분명 아베스에게 온전치 못한 관계성을 제공하여 주었으나 아베스는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아웨 하나님께 가정(אָבִי וְאִמִּי, 압 아웨)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9b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베스의 존귀함은 그 출생과 진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존귀함은 외모나 삶이 풍요롭고 영화로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아베스의 존귀함, 혹은 외적인 삶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다. 부모의 신앙과 경험, 그리고 경륜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는 대목이다.⁶⁸⁾ 그 어머니 말이 ‘이 이름은 아베스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수고로이”라는 말이다. 히브리어로 수고로이라는 말은 오제브(אָזֵב)이다. 이 단어는 새겨 만든 우상을 말하는 단어이며 그 우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통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⁶⁹⁾ 즉 직역을 하자면 우상과 그 우상을 통해서 생겨난 고통 가운데서 그를 낳았다는 말이다. 우상이 판치고 그릇된 삶의 모든 그릇들이 판치는 가운데 그를 낳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아베스의 존귀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하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존귀함이다.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둔 것이다.

마치 수많은 셈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으나 유일하게 끝까지 한 사람만이 그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다. 아버지 데라가 우르 지역에서 거대한 우상 제조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베스의 어머니의 말을 빌려 보면 이 어머니도 분명 그러한 우상의 상황 속에서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아들을 주었다 함이다. 아베스의 어머니는 우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출생한 아이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키운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아웨 하나님을 섬긴 아베스의 중심이 존귀한 것이다.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불변의 켈렘 엘로힘을 세워 암 아웨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 바로 아베스가 구약의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10a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9절까지가 아베스의 출생과 삶에 대한 기록이라면, 10절부터는 아베스가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온전한 자이(צדק ושלום, 켈렘 엘로힘)가 아웨 하나님의 가정(בית אלהים, 암 아웨)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아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קרא, 카라). 자신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말이다.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אם)으로 시작하는 가정법 문장으로, 의미는 만일

당신이 나에게 지금 주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거든 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짧은 히브리어 구문을 통해서 아베스의 신앙을 읽을 수 있다. 즉 아베스는 우상 속에서의 출생, 자신의 환경, 부모의 연약함, 자신의 외모나 가정환경의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켈렘 엘로힘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스는 켈렘 엘로힘의 모습과 암 아웨로서의 신앙을 완성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부모가 연약함을 원망하며 미워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아웨 가정”의 가장 온전한 사람인 것이다. 이 신앙은 마치 아굴의 기도하고 그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자신에게 할당된 그 분량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삶의 연습으로 삼게 해 달라던 아굴, 여기다가 자신에게 복을 더 주시고 싶거든 자신의 경건성의 축복을 달라는 아굴, 이러한 신앙적인 흐름이 오늘 본문의 아베스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ברך)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다’는 뜻이다.⁷⁰⁾ 이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이다. 구약 성서에서 축복은 아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풍요로움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필요의 대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풍요로움은 아웨께서 필요에 맞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시기적인 필요조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을 더하시려거든 더욱 아웨를 섬길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아웨 하나님을 조금 더 높일 기회를 주시려거든 다만 그것을 더하여 달라고 바라는 것이다.⁷¹⁾ 바로 이것이 켈렘 엘로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암 아웨의 참 모습인 것이다.

간절히 아웨를 아버지로 섬기고 경배하고 싶은 이 마음이 구약이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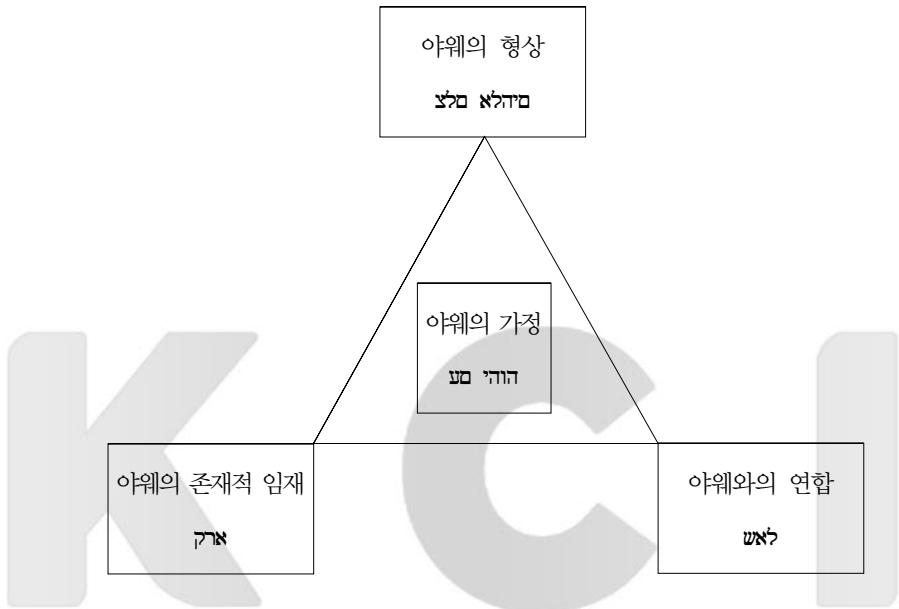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인 것이다. 오직 아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 자신의 켈렘 엘로힘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 들임으로써 암 아웨의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베스의 삶이고 신앙인 것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⁷²⁾

10b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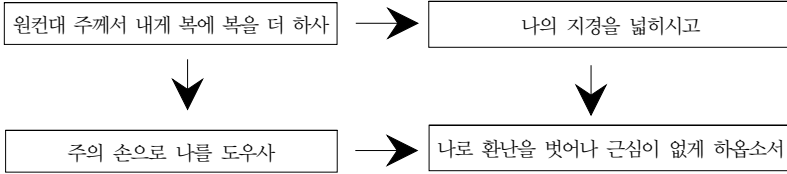
아베스가 하나님께 복위에 더한 복, 즉 아웨를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데 있어서 주께서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말이다. 이 지경이라는 말은 계불(גבול)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한계’, 혹은 ‘경계선’을 말하는 단어이다.⁷³⁾ 아베스가 구하는 카라(קרא)의 핵심은 복의 복을 더하여 아웨 하나님과의 합일과 일치를 지금보다 더욱 온전하게 해 달라는 간구인 것이다. 지금의 한계인 계불(גבול)을 넘어서서 아웨 하나님과의 암 아웨를 만들어가는데 자신의 한계를 부수어 버리고 자신을 아웨와 연합된 보다 존재감 있는 켈렘 엘로힘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즉 만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으로 자신의 존재의 자리와 무게가 작고 연약하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수어 버리고 더 큰 존재의 자리와 무게로 자신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아웨를 더욱 높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달라는 간구인 것이다. 아베스의 간구는 존재론적인 요청으로 암 아웨의 관계적 존재 안에서 만들어지고 보완될 수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삶의 필요나 가변적인 환경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오직 아웨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내용을 카라(קרא)와 쇠알(שאל)의 구조 속에서 역동적으로 풀어 간 것이다. 아베스의 간구는 단순한 기도나 요청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켈렘 엘로힘으로서 암 아웨 안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אָרַק) 요청(שׂאָל)을 간구한 것이다.



10c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베스의 쇠알(שׂאָל)의 내용에서 중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아웨의 손이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위협이고 지금 두 번째 아웨께 구하는 것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을 도와서 자신으로 하여금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구문은 서로 대구를 이루는 히브리어 구문이라 볼 수 있다.



야웨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 달라는 요청은 구약성서에서 전형적인 야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다.

주의 팔(רַמְבֵּן ,) (יָד ,) : 강하고 주의
오른손(יְמִינִי ,) : 높으시니이다⁷⁴⁾

오늘 본문에 나온 손은 야드(יָד)로서 말 그대로 ‘손’을 의미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말이다.⁷⁵⁾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편 손’이다. 손을 오므리거나 주먹을 쥔 손이 아니다. 주먹을 ‘쥔 손’은 주의 심판과 힘을 구하는 것이다. ‘쥔 손’은 히브리어로 카프(כַּף)로서 주의 강력한 힘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야웨의 손은 ‘편 손’이다. 무엇인가를 끌어 앉거나 돌보거나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영향력, 혹은 보호하심 아래로 무엇인가를 집어넣기를 바랄 때 쓰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한 손을 살펴보자. 그가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 손’, 야드(יָד)이다. 이 ‘편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은 하아(יָד)로서 ‘있다’라는 존재 동사이다. 즉 직역을 해보면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적극적인 간절함이요, 더 나아가 ‘다만 그저 주의 손이 내 곁에 있어 주지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만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지 않아도 모든 환란이나 근심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암 아웨로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간구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블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⁷⁶⁾

10d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웨의 손이 곁에 있어 이제 아베스는 그 손이 존재함으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환란이나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환란은 리(ㄹ)로서 “악”이라는 말이고 근심은 아차브(ㄷ)로서 “꾸미다”, 혹은 “만들다”라는 뜻으로 아베스가 하나님의 손이 곁에 있음으로 자신의 삶의 풍요로운 인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악(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웨 하나님과의 암 아웨의 관계성을 파괴 할 수 있는 리(ㄹ)로부터 자신을 구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⁷⁷⁾

이것이 아베스의 신앙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로 모시고 암 아웨의 가정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아베스인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지고 싶지 않은 아베스의 모습인 것이다.⁷⁸⁾ 자유로운 가난, 풍요로운 가난, 차고 넘치는 가난을 요청함으로서 암 아웨의 참된 존재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⁷⁹⁾

야베스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 첫 번째 것은 자신의 한계인 게불(גבול)을 부수어 야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가는 동안 야웨 하나님의 손인 야드(יד)가 함께 존재의 자리에 참여해 주기만(תתן, 하야)을 바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은 참된 암 야웨의 아들로서 만족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어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와 크기와 그릇을 넘어 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일 수 있기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항상 계심으로 악(רע, 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אלוהים, 엘리림)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10e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보(בוא)로서 “들어 가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에 들어오신 것이다. 친히 입장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야베스와 하나님은 암 야웨로서 철저히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존에, 우리 자녀위에 들어오 시기를 간절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쉐렘 엘로힘으로

만드셨다. 아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행동 속으로, 모든 생명의 삶과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도록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아웨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웨 하나님과 암 아웨가 되는 방법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⁸⁰⁾

III 단는 글 : 첼렘 엘로힘(צְלֵם אֱלֹהִים)과 암 아웨(אִם אֲוֵה)의 역동적 인격 결합으로서의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라는 첼렘 엘로힘(צְלֵם אֱלֹהִים, 아웨의 형상)의 독립적인 두 개체가 암 아웨 안에서 동등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며 완성되어 가는 거룩한 신적인 기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인 남자와 여자는 아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각 개체간의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이들의 인격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동시에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 존재의 모습이며, 이러한 연합으로부터 21세기 인류가 가진 인간성의 파괴와 가정의 급격한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가정의 모든 파괴와 해체의 출발점은 근본적인 존재로서 첼렘 엘로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론적 불안정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암 아웨의 인격적인 신뢰와 안정보다는 이타적이지 못한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고립된 비정서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일체의 인격적인 혹은 비인격적인 가정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 붕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켈렘 엘로힘으로서의 독립적이나 관계론적인 존재인 우리는 암 아웨(אם אַוה, 아웨의 가정)속에서의 통합적인 존재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통합적인 인간,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진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조차 가지지 못하고 출생한 아베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해 가면서 자신의 충분한 인격을 관계론적으로 완성시켜 나갔으면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암 아웨의 통합적인 모습을 이루어 냈다. 아마도 구약성서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가정은 선택이나 혹은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켈렘 엘로힘이며, 암 아웨의 방향에 삶이 맞추어져 있는 한 가정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이며, 인격의 토양이고, 존재의 영양분인 것이다.

아베스의 어머니가 바라고 이루고자 한 가정은 보편적이며 충분히 현대적인 가치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 자아의 완성, 자녀들의 풍요로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베스는 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이 아베스가 가진 암 아웨의 모습이다.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켈렘 엘로힘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암 아웨를 꿈꾸기보다는 암 아니(אם אני, 자신의 가정)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존재의 가치 회복을 통해 가정에서 인격을 연합하려하지 않는다.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려하기 보다는 관계를 통제하고, 켈렘 엘로힘인 남여의 인격적인 결합보다는 권위적인 지배를 하려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아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암 아웨가 그것이다. 본질적인 인격적 결합으로서의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 아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재되어야 한다. 가정과 신앙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간의 관계를 떠나 구약의 아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로 모형적으로 전수되면서 성서적인 전통위에 세워지고 있다.⁸¹⁾ 심지어 바울도 “남편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 위에서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⁸²⁾

요컨대, 지금까지 본 논고가 논의한 주제는 아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과 삶의 등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성서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며 이에 대한 구약적 논증이다. 가정의 해체, 파과, 붕괴 등으로 점철되는 현대 21세기의 가정의 자리에 이 시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바로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자리를 통해 개념적으로 분석 제시한 것이다.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켈렘 엘로힘과 암 아웨의 창조적인 연합의 자리에서 현대의 가정의 의미와 자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가진 현존이 필요로 하는 과정적 필요성을 도출시켜 우리의 실존을 켈렘 엘로힘으로 완성시켜 암 아웨 안에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 시대에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이 땅 위의 작은 천국으로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데 그 시발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신앙의 회복된 가치 위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격적인 동등함을 서로 나눌 때 이상적인 가정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이상적인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아웨 하나님께 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이다. 관계성 속에서 친밀해지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존재적으로 뿌리 깊은 가정은 분명 구약 성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아웨 신앙 위에 세워진 인격적 결합으로서의 암 아웨의 가정의 의미와 가정 내에서 필요한 관계적인 역할과 이해를 서로 충분히 상호 교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⁸³⁾

참고문헌

- Arndt, William F. & Gingrich, F. Wilbur.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Augustin, Matthias & Kegler, Jrgen.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Ein Arbeitsbuch. Gtersloher: Gtersloher Verlaghaus Mohn, 1987.
- Baumgartner, Koehler. *The Hebrew and Aram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 Boston, Koln: Brill, 2001.
- Curtis, Edward L. and Madsen, Albert A. *The Book of Chronicles*. Edinburgh: T&T Clark, 1976.
- Fohrer, Georg. *Das Alte Testaments. Einfhrung in Bibelkunde und Literatur des Alten Testaments und in Geschichte und Religion Israels*. Gtersloh: Gtersloher Verlaghaus Mohn, 1969.
- Hanson, Paul D. *The People Called: The Growth of Community in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 1986.
- Howell, John. C. *Church and Family Growing Togeth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84.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New York, Koln: E. J. Brill, 1995.

- Leslie, Gerald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Lutz, H. M. & Timm, H. & Hirsch, E.Chr.(hg.). *Altes Testament: Einfhungen, Texte, Kommentare*. Mit einer Einleitung von Gerhard von Rad (Serie Piper 347). Mnchen. Zrich: Piper, 1970, 1987.
- Nieber, Richard. *The Responsible Self*. New York: Happer and Row, 1973.
- Noth, Martin. *Die Welt des Alten Testament. Eine Einfhruung in die Grenzgebiete der Alttestamentlichen Wissenschaft*. Berlin: Alfred Tpelmann, 1962.
- O. Procksch, *Die Genesis*. (KAT I), 1924(3. Aufl.).
- Preu Horst Dietrich & Berger, Klaus. *Bibelkund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 Erster Teil: Altes Testament*. (UTB 887). Heidelberg. Wiesbaden: Quelle & Meyer, 1985.
- Ramsey, William M. *The Westminster Guide to the Books of the Bibl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Riebl, Maria & Stiglmaier, Arnold. *Kleine Bibelunde zum Alten Testament*. Innsburg. Wien: Tyrolia Verlag, 1980.
- Rogerson, J. & Davies, P. *The Old Testam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sel, Martin.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Die kanonischen und die apokryphen Schrif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 Schlunk, D. *Merkstoff zur Bibelkunde: Altes und Neues Testament*. Tbingen: J.C.B.Mohr, 1983.
- Schmid, H. H. *Kleine Bibelkunde*. Z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 Schmidt, Werner. H. *Die Sch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WMANT 17), Neukirchener Verlag, 1973.
- Schmidt, Werner. H. & Thiel, W. & Hanhart, R. *Altes Testament* (UTB 421. Grundkurs Theologie Band 1). Stuttgart. Kln. Berlin. Mainz: Kohlhammer

- Verlag, 1989.
- Steck, O. H. *Arbeitsblätter Altes Testament für Einführungskurse*. Zu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 _____.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FRANT 115), Göttingen, 1975.
- Trebolle Barrera, Julio. *La Biblia judia y la cristiana*. Madrid, 1993. Tr. by Watson, Wilfred G.E. *The Jewish Bible and the Christian Bible*. Leiden. New York. Kln: E.J.Bri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 Weber, O.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 Bielefeld: Luther Verlag, 1981.
- Zenger, Erich (hg.). *Lebendige Welt der Bibel. Entdeckungsreise in das Alte Testament*.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97.
- Bover, Theoder. 「부부학개론」. 임석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Clinebell, Howard. 「부부성장상담」. 이종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_____.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한기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_____. 「현대목회상담」. 박근원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Dufoyer, Pierre. 「부부생활」. 김창석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6.
- Freedman, David Noel & Smart, James D. *God has spoke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D. N. 프리드만 & J. D. 스마트 지음. 이희숙 옮김. 「구약성서 이해의 요점」. 서울: 종로서적, 1993.
- Hayes, John H.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Stud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6. 존 H. 헤이즈 지음. 이영근 옮김. 「구약학 입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Knight, Douglas & Tucker, Gene (ed.).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Chico: Scholars Press, 1985. 더글라스 나이트, 진 티커 편집. 박문재 옮김. 「히브리 성서와 현대의

- 해석자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Leslie, Robert. C. *Jesus and Logotherapy*. 「예수와 의미요법」. 도병일 역. 서울: 혜선출판사, 1984.
- Piper, Otto. A. 「성과결혼」. 전경연, 강한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Rusell, Letty. M. *The Future of Partnership*. 김상화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Stone, Howard. W.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고용수. 「교회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1984.
- 방현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90.
- 오성춘. 「위기상담사례연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1983.
- 유영규.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90.
-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이종윤. 「기독교인의 혼인관」. 서울: 기독교사상, 1991.
- 정일웅.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교육연구」. Vol. 1(1990).
- 정철범. 「기독교 혼인실의 실제」. 서울: 기독교사상, 1991.

후주

- 1) 유영규,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0), 13.
- 2) 이종윤, 「기독교인의 혼인관」 (서울: 기독교사상, 1991), 7-8.
- 3) 창 1:26-27.
- 4) 갈 3:28.
- 5)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66.
- 6) Gerald R. Leslie,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221.
- 7) 창 1:28.

8) Howard J. Clinebell, 「현대목회상담」,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105.

9)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66.

10) 창 1:26, 27; 5:1; 9:6.

11)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형상(Image)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켈렘(צלם)이며 모양(Likeness)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데무트(דמוּת)이다. 헬리어 번역판인 칠십인역은 켈렘(צלם)을 에이콘(εἰκόν)으로 데무트를 호모이오시스(ὁμοίωσις)로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찰메누 키테무테누(בצלמנו כדמותנו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즉 두 구문 사이에 접속사 없이 연속적인 한 구문으로 읽어주면서 켈렘(צלם)과 데무트(דמוּת)를 구문적으로 하나로 읽어주고 읽어주고 있는 반면, 라틴어 불가타(Vulgate)는 “ad imaginem et similitudinem”, LXX는 “κατὰ εἰκόνα ἡμετέραν καὶ καθ’ ὁμοίωσιν”로 각각 번역하면서 et나 και라는 동등 접속사를 넣어 읽어줌으로서 켈렘(צלם)과 데무트(דמוּת)는 두 개의 독립적인 개체가 사용된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의 원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두개의 용어를 구문적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연결하여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히브리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다. 예를 들어 창 1:26에는 두 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다음절에는 켈렘(צלם)만 사용하고 있고, 창 5:1에는 데무트(דמוּת)만 사용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 켈렘(צלם)과 데무트(דמוּת)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창 9:6에서는 다시 켈렘(צלם)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 대해서 현대 학자인 궁켈(H. Gunkel)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짐멀리(W. Zimmerli)는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이 라는 관계적인 의미로 보고 있으며, 바르트(K. Barth)는 유비적 관계성으로 이해하며 서로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WMANT 17), Neukirchener Verlag 1973, 132-144. O. 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FRANT 115), Göttingen 1975, 150ff.

13) 렘 3:16-18.

14) 에스겔 36장 역시 이스라엘이 포로후기 새롭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포로기 동안 폐허가 되었던 곳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되며, 또 인구가 늘어날 뿐 아니라 또 산업도 번성하게 됨을 말한다.

15) 창 15:5, 22:17, 26:4, 출 32:13, 신 1:10, 10:22, 28:62, 느 9:23.

16) 창 22:17, 32:12, 사 10:22, 48:19.

17) 창 13:16, 28:14.

18) 창 13:16, 15:5, 16:10, 32:13.

19) H. W. Schmidt, 147. 이 점을 이미 O. Procksch, Die Genesis (KAT I), 1924(3. Aufl.), 433에서도 언급하였다.

20) 삼상 20:6, 29.

- 21) 이즈레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홀으시다’라는 의미이다.
- 22) 창 29: 35.
- 23) 히브리(עבר) = 문자적으로 에벨(עבול) 즉 지손이라는 뜻으로, 에벨(עבול)은 셀라의 아들, 셈의 증손, 벨렉과 욥단의 아버지이다. 학문적으로는 텔 엘 아마르나 서신에 언급된 하비루와 연결시켜야 히브리를 추론해야 할지, 아니면 창 10:24, 25에 언급된 헤벨과 연결해 생각해야 할 지에 아직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다.
- 24) 창 14:13; 39:14, 17; 출 1:19.
- 25) 창 40:15; 출 2:7.
- 26) 사 5:11, 13; 삼상 2:24. 출 19:6과 신 7:6을 비교해 보라.
- 27)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New York, Koln: E. J. Brill, 1995), 837-839.
- 28)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837.
- 29) Paul D. Hanson, *The People Called: The Growth of Community in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 1986), 467-518.
- 30) 헬리어로 이와 관련이 있는 용어들로는 오이키아(oikía)와 오이코스(oikos)이다.
- 31) 민 11:10 의 ‘가족’, 수 7:6-18 의 ‘족속’이 그런 개념이다. 헬리어로는 “파트리아(πατρία)”가 미스파하(משפחה)라 같이 씨족, 가족, 친족을 의미하는 용어로 상용하고 있다.
- 32)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지”란 구절 속에서 “집”이라고 한 것이 바이트(בית)이다(창 14:14, 17:12-13, 시 113:9 참조). 현편 출애굽기에서 바이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가문의 번성을 말하는 가운데 “가족들”이란 뜻으로 사용된다(출 1:21).
- 33) 창 1:27-28, 2:18-24, 3:16; 시 68:6.
- 34) 시 127, 128.
- 35) 말 2:15.
- 36) 창 16:5, 21:10-11, 29:30-34.
- 37) 사 49:15; 왕하 10:1, 8.
- 38) 출 13:8; 신 4:9.
- 39) 출 20:12.
- 40) 잠 13:1, 15:5, 19:13.
- 41) 창 5, 36; 역대기
- 42)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김상화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03-104.
- 43)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199.
- 44) 신 17:17.

45) 창 2:18, 4:23, 16:7, 29:23, 28:31; 신 17:17; 왕상 11:1, 3. 신약성경에서도 일부일처를 교회지도자들에게 대한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일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었다(딤후 3:2, 고전 7:2).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여성을 위해 한 남성이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요 14:16-18). 반면 일부다처는 두 사람 이상의 아내와는 독특한 일대일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부일처만 못하다. 시기와 증오는 일부다처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결혼에 의해 묶여진 일부일처제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성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6) 창 2:24.

47) 출 20:17, 21:5; 레 18:8,16,20, 20:10, 21:3; 민 5:12; 신 5:21.

48) 잠 5:15-19.

49) 잠 9:9; 12:4; 18:22; 19:13.

50) 말 2:14.

51) 출애굽기 20:14.

52)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봐도 간음은 강한 도덕적인 요소를 가진다. 더욱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이다(창 39:8-9).

53) 출애굽기 20: 3.

54) Koehl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 Boston, Koln: Brill, 2001), 419.

55) 창 35:16-18.

56) 대상 4:9-10.

57) 창 5:21-24.

58) 창 5:29.

59)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455.

60) 마 5:7.

61) 삼상 16:7.

62) 창 35:17-18.

63) 대상 4:9.

64) 삼상 16:7.

65) 시편 8, 23편.

66) 삼상 17:34-37.

67) Edward L. Curtis and Albert A. Madsen, *The Book of Chronicles* (Edinburgh: T&T Clark, 1976), 107.

68) Edward L. Curtis and Albert A. Madsen, 105-108.

69)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864.

70)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159.

71) 출 16:11-30.

72) 시 119:103.

73)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173-174.

74) 시 89:13.

75)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386-388.

76) 계 3:20.

77) 마 6:13.

78) William F. Amdt & F. Wilbur Gingrich,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721.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πρωτασσω)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가난하다는 의미인 프로타소(πρωτασσω)는 아무 가진 것 없이 움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서, 초대 교회 내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철저히 야웨 하나님 말고는 가진 것, 가질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79) 시 1:1-3.

80) 마 3:3.

81) 막 2:19-20, 요 3:29, 마 25:1-3.

82) 고후 11:2.

83) 방현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90), 249.

Abstract

The Ideal Family of Old Testament in the Creative Behavior of YHWH

– in the Creative Dynamics of Correlation

between **מִיְהוָה** and **הוֹדֵי** –

Myung Ki Cho

(Ph. D. BaekSeok University)

This paper is the study of analysis and making an alternative idea for the ideal family that flows in the creative dynamics of correlation between **מִיְהוָה** and **הוֹדֵי**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at is the very important two themes. The perspective of this paper spreads narrowly to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מִיְהוָה** is the independent being and **הוֹדֵי** as the integrate being in the family of a divine system. This study sets the background of this paper in the vertical relationship with YHWH, and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along the text criticism and structural analysis of texts, Chr. 4:9-10. The Ideal family of old testament is to attend on YHWH, to set up the personality completely in his faith in YHWH. Therefore, the family goes through this process controls the society and the place of life all human belong after being built up on the faith in YHWH. The modern crisis of all kinds of families occurs at a vision without YHWH, a family without

YHWH, and seeking for happiness except YHWH.

The story of Jabez as described in Chr. 4:9-10 is the proof text of this paper. Jabez has a complete personality as **סֵלַץ מִיְהוָה** but he has not a birth in normal situation, a healthy body, and an universal value all peoples have. He is a just man of the weakness. But He completes the ideal family as **הוֹדִי סֵעַ** the family of YHWH. The Jabez's family complements our family floats on the water of world and recovers a destructed family because our family and life is in processing to complete the ideal family. The ideal family in old testament is setting up on the creative personality of **סֵלַץ מִיְהוָה**, completing in **הוֹדִי סֵעַ** a family of YHWH. **סֵלַץ מִיְהוָה** n **הוֹדִי סֵעַ** must be a true being of Human and his society, a real family of YHWH, in balance between nature and society with the family of a divine structure.

Keywords : Old Testament, Family, Jabez, **הוֹדִי סֵעַ מִיְהוָה סֵלַץ**

к с і